

농진청 '유전자변형 작물 상용화' 전면 중단

전북 시민·사회단체 요구 수용... 연말까지 사업단 해체 민·관 농생명위 구성...수입 제품 안전성 연구는 계속

농촌진흥청이 유전자변형(GM) 작물 상용화를 중단하기로 했다. 연간 70억~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GM 작물 개발 사업단을 해체한다. 다만 수입 GM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 등을 위해 연구는 계속 진행한다.

4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 1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인 '반 GMO전북도민행동'과 GM 작물 개발 관련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농진청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GM 작물 상용화 추진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까지 사업단을 해체하기로

했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되는 GMO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안전성 평가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연구 등에 집중하고, 대학·연구소 및 기업 등의 연구 및 상용화 기술에 대해 평가 및 심사 등의 안전성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되는 GMO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안전성 평가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연구 등에 집중하고, 대학·연구소 및 기업 등의 연구 및 상용화 기술에 대해 평가 및 심사 등의 안전성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 등과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연구 계획을 협의하는 '농생명위원회(기정)'를 구성한다. 농생명위원회는 농진청과 GMO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사회 측이 각 동수로 추천해 20인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양측에서 1명씩 선정해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농진청에서 부담한다. 위원회 간사 또는 사무국은 농진청 연구정책국에 설치한다.

농진청은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현재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더욱 엄격하게 GMO연구시설을 관리하고, GMO격리포장도 유리온실 등으로 안전 관리 시설을 더욱 보강하기로 했다.

또 GMO 연구내용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그 동안 정보 접근성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홈페이지 뿐 아니라 연구현장에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연구현장도 공개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GM작물 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추진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국내 농업의 한계 극복을 위한 기

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GM작물 개발을 목표로 한다.

전북도민행동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GM 작물 상용화를 반대하며, 농진청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이어왔다.

지난 4월부터는 천막 농성에 돌입, GM 작물 상용화에 대한 농진청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농진청은 지난 5월 소통창구를 설치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을 담아 이날 협약을 했다.

황규석 농진청 연구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하는 협치 사례"라며 "지역사회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고흥·신안' 음식거리 추가 선정

고흥 장어·신안 빨낙지...내년까지 각각 10억 투입

전남도는 올해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고흥 장어거리와 신안 섬 빨낙지거리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은 전남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늘고 있는 상태에서 관광산업 파급효과가 큰 남도음식을 음식거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특화함으로써 관광객 5000만명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 장어거리는 인접 지역에서 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성이 높고 농촌 주변 소규모, 인공섬 등 관광사업과도 연결돼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안 섬 빨낙지거리는 압해도 송공항 일원에 조성된다. 2018년 압해도와 압태도를 잇는 새천년대교 개통을 앞두고 지역 대표 먹거리인 섬 빨낙지를 관광관광 조성 등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 좋

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정은 음식·관광·디자인 분야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거리 조성 계획의 적절성, 지역 음식을 대표할 수 있는 메뉴 선정, 관광과 연계한 계획, 자체예산 확보, 상인회 참여, 지자체 참여 의지 등을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선정된 지자체는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거리 상징물, 편의시설, 간판 개선, 보행로 확보, 주차장 확보 등 관광객이 편히 쉬어가도록 2018년까지 개소 당 도비와 군비 10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순천 옷장국밥거리, 광양 불고기숯불거리, 곡성 참깨·은어거리, 보성 꼬막거리, 완도 전복거리가 선정돼 오는 12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주 '오목교' 개통 내장산 120만 백양꽃 장관 시민단체 야생화 식재사업 결실



한옥마을~무형유산원 관광객 외연 확대 기대

전주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을 연결하는 인도교인 '오목교'가 4일 정식 개통됐다.<사진>

오목교 개통으로 한옥마을을 관광객들이 이 다리를 따라 전주천 너머인 국립무형유산원과 남산성, 서학동예술촌 등으로 곧장 건너갈 수 있어 전주 시내 관광의 외연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억원이 투입된 오목교는 길이 86m, 폭 4m 규모로 건설됐다.

앞서 시는 2015년 5월 전주관광 외연 확대를 목적으로 인도교 실시계획에 들어간 데 이어 지난해 8월 착공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천 너머 서학동 지역에도 국립무형유산원과 남산성 등 전주가 가진 풍부한 문화·역사자원들이 많다"며 "오목교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과 문화·역사 자원들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통로로 2000만 전주 관광객 시대를 여는 귀중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내장산국립공원에 자생 야생화인 '백양꽃<사진>'이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다.

국립공원내장산 관리사무소는 가을 단풍과 함께 내장산의 새로운 백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New 내장산 백년대계 운동'(이하 백년대계 운동)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백년대계운동은 2014년부터 내장산에 새로운 탐방아이템을 창출하기 위해 관리 사무소와 지역 시민단체가 함께 내장산

자생 야생화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120만본을 공원입구부터 내장사 일주문구간에 식재했다.

백양꽃은 8월 말에서 9월 초에 주황색의 꽃을 피우며, 내장산에서 자생하는 상사화의 한 종류이다.

지역에서는 '내장산사화'로도 불리며 그간 식재한 백양꽃이 탐방로 주변 곳곳에 피어나 무더위에 지친 탐방객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다.

정동식 자원보전과장은 "내장산 백년대계 운동은 국립공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손을 잡고 협업을 통해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훼손된 진입로 주변을 복원함과 동시에 탐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사계절 탐방을 위한 내장산의 기반을 마련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kwangju.co.kr

'매력 넘치는 마을 숲 찾습니다'

전남도 콘테스트...이달말까지 지자체서 접수

"아름답고 매력있는 마을 숲을 찾습니다."

전남도가 주민 스스로 숲을 조성하고 가꾸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제2회 전남도 마을숲 콘테스트'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콘테스트 대상은 조성·관리 분야로 나눠, 주민단체가 직접 조성하거나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마을숲이다. 참가를 바라는 마을회나 단체는 9월 말까지 해당 시군을 통해 전남도 산림산업과(061-286-6635)로 접수하면 된다.

우수 마을숲은 ▲숲의 역사성 ▲생태적·경관적 기능 우수성 ▲지역에 대한 기여도 ▲관리주체의 관리 보전 노력 ▲숲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전남도는 부문별로 대상 1개소, 최우수 1개 마을씩 4개 마을을 선정해 상패와 안내판을 설치해주고, 지속적 관리를 위해 대상은 300만원, 최우수는 200만원의 관리비를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나주 청소년 꿈 찾기 '진로콘서트'

7일까지 종합스포츠파크...직업체험관 등 53개 부스 운영

나주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직업 체험과 진로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2017 꿈 찾기 떠나는 나주 진로콘서트'가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다.

나주시와 나주교육지원청이 공동 주최하고 나주교육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진로콘서트는 진로탐색·설계관, 진로멘토상담관, 테마별 진로직업체험관, 지역고교와 대학 홍보체험관, 공공기관 홍보관 등 총 53개 부스가 운영된다.

진로직업체험관은 지역 학생들의 직업 선호도 조사를 거쳐 IT·개발자, 로봇

공학자, 입체작품제작(3D프린트), 드론 개발자, VR체험 등 에너지 과학분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또 경찰관·소방관·간호사·생활체육지도사·물리치료사·포토그래퍼·인터넷쇼핑운영자·빠피세(제과제빵)·가수오디션·마술사·바리스타·플로리스트·별론아티스트 다양한 직업체험도 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의 진로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진로탐색·설계관은 대학생 멘토와의 상담을 통해 진로 고민 해결과 목표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담양 청평면 730㎡ 전원생활적합 1억1500
- 장성 북하면 장성호·백암사 인근 2803㎡ 동호인 주택적합 1억3천
- 장성 북하면 백양동계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 원도 악산면 해안가 대지 607㎡ 팬션용 주택과 낚시배 1억 1500

주택·원룸·이파트

- 화성동 중흥파크내-내편 대지 149㎡ 주택 160㎡ 삼기전용가능 2억3천
- 화성동 주택 화순 동면 대지 320㎡ 국유지 50평정도 사용 주택 60여평 3억3천 상등
- 남구 서동 2층주택 대지 125㎡ 건평 124㎡ 일대 1억5천 월15 매도 2억1500
- 전원주택 담양 금성면 대지 495㎡ 주택 154㎡ 은행 1억3천 매도 2억7천

투자·매도·교환

- 무안 현경면 바닷가 전 4542㎡ 공사가 7천만 매도 8300만원
- 함평역 인근 대로점 주거지 3192㎡ 다용도 가능 2억3천

상가건물

- 농성동 대로점 대지 313㎡ 건평 997㎡ 전세 3억5천 월 1100선 25억5천
- 화성동 다가구 8세대 전세 2억2천 1억5천선 땅과 교환 원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매도 5억6천
- 유동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원룸·다세대 부지

- 동명동 주거지 294㎡ 법원과 조세대 사이 3억7천
- 신안동 상업지 358㎡ 신안지구대 부근 4억4천
- 광산구 옥동(평동) 1438㎡ 평동역에서 1.5km 15억3천

급매

- 영암 삼호읍 용당리 전 4628㎡ 공사가 2억3천 매도 1억9천
- 전원주택지 담양 금성면 대성리 14479㎡ 담양호인근 1억7천
- 북구 우산동 모텔 대지 408㎡ 건평 971㎡ 27실 6억7천
- 중흥동 모텔 대지 184㎡ 건평 652㎡ 은행 3억9천 수리해0함 천만원
- 남구 송하동 신 22556㎡ 대물담보용 최적 감정 2억5천, 매도 1억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최고 투자처·파트

- 전남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산 3, 4, 5, 6번지
- 비금도 내에 있는 단독섬, 무인도
- 임야 14,010평, 보전 관리지역
- 육지에서 1km 지점
- 향후 개발가치 100억이상, 투자가치 최고
- 매 14억, 현금 4억 + 기타 부동산과 교환가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100만원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33평)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